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축일
제35권 5호(나해) 2014년 12월28일

[묵상]



오늘 제 2독서에서,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기를 꺾고 맙니다. -- 사도 바오로.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렐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생)김지수 보나 & 김지예 크리스티나, 황재원 요한, 최희철 사도요한, 조옥중 사도요한 신부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박무성,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이종갑 부르노, 이석진 가브리엘, 현시영 요셉, 김복님 마리아 & 김차옥 요셉, 변혜경 올리안나, 김기준 안젤라, 김만성 & 김봉두 & 강옥채, 이순국 & 이용직, 하요셉 & 노안나, 정점례 올리안나, 이원일 안토니오 & 황인홍 빅토리아,
	(생)서성용 베드로, 토런스 북구역 가정들, 권영환 프란치스코 & 최효진 베로니카, 김현정 헬레나, 유잔 요한, 유철희바오로, 김마리아 미카엘라, 김명숙 루실라, 배영민 아나스타샤, 이민상 요한 & 이순자 비비안나, 오세원 아타나시오 & 오혜숙 루시아의 자녀들, 오아타나시오 & 오투시아의 대자 대녀들, 박진수 스테파노 & 박혜경 레나타, 조옥중 사도요한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3,2-6.12-14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 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밭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3,12-21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루카(Luke) 2,22-40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35	101	101
봉헌	145	257	254
성체	401	305	287
파견	146	148	148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쇄신

제3장

‘성령쇄신운동’의 빛과 그늘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과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이 운동에 대한 비판자들도 생겨났다. 다행스럽게도 성령쇄신운동 자체 내에서 스스로 정화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령쇄신운동의 빛과 어둠, 곧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짚어 보고자 한다.

1. ‘성령쇄신운동’의 빛

성령쇄신운동은 한국 가톨릭 교회에 풍요로운 영적 결실을 가져왔는데, 그 결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느님 현존 체험을 통한 개인의 신앙 쇄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봉사 활동이 그것이다.

1) 하느님 현존 체험과 신앙 쇄신

신앙인이면 누구나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싶은 갈망을 지니고 있는데, 적지 않은 신자들은 성령쇄신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갈망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다. 2006년에 출간된 『성령쇄신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성령 쇄신 기도회 모임을 통해서 ‘하느님 현존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상당수의 신자들이 기도 모임을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하느님을 살아 계신 분으로 체험하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일찍이 사도들을 비롯하여 교회의 성인들이 모범이 되어 보여 주었던 삶, 곧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란 나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가고자 끊임 없이 노력하는 삶이다(2코린 3,17-18 참조).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하느님의 현존 체험은 큰 도움이 된다. 성령쇄신운동에 참여한 많은 이들은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고 깨닫게 됨으로써,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추기경 시절에 한 인터뷰에서, 성령쇄신운동이 신자들의 신앙 쇄신에 도움이 되는 하느님 현존 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개인적 체험 없는 교의적 믿음은 공허하다.”는 말로써 신앙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바로 성령쇄신운동이 이러한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확신한다. 성령쇄신운동은 “하나의 희망이고, 시대의 적극적인 징표요, 우리 시대에 대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합리주의의 결과로 갈수록 마비되고 무미건조해진 이론과 실천에 대한 기도의 기쁨과 풍요함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이 운동의 효험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속>

가족 그리고 이웃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오랫동안 쉬었던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흔히 하는 말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 준 것은 역시 가족뿐이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참 아슬아슬한 느낌이 듭니다. 마침 오늘이 성가정 축일입니다만, 우리는 때론 이 ‘가정’의 의미를 자기 편리대로 한껏 축소해서 ‘나를 보호해 주는 보호막’ 정도로, 남들을 배제시키는 ‘폐쇄적 공동체’의 의미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받는 상처는 주로 누구에게 받는가? 상처의 원인은 주로 내가 잘 아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와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이 던지는 상처 될 만한 심한 말도 한번보고 말 사람이라고 흘려버리면 그만이고, 설사 역살을 잡고 싸우더라도 별로 가책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지원군으로 여겼던 가까운 가족에게 받는 상처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폭력, 부모의 불화, 가족의 무관심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차마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나는 괜찮다, 괜찮을 거야’라며 자기최면을 걸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내 상처의 많은 부분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집 하나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셋방살이가 있었습니다. 부엌 딸린 방 한 칸을 얻어 사는 신혼부부 외에도, 좀 넓은 집이면 위채 아래채 나누어 세를 사는 집도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 특별히 권위를 내세우는 고약한 집주인이 아니라면 보통 한 식구처럼, 적어도 좋은이웃으로 살았습니다.

세 들어 사는 아이들끼리는 좋은 놀이상대가 되어 주었고, 무엇보다 외출해서 아무도 없을 때 집도 봐주고, 편지도 받아주고, 연탄불도 대신 갈아주고, 소나기라도 오면 넣어놓은 빨래도 걷어주고, 장독대 뚜껑도 덮어주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는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며 몸에 익히며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뚜껑을 대신 덮어줄 장독대가 없습니다. 세탁에서 건조까지 똑딱 해결해 주는 성능 좋은 세탁기가 있기에 빨래도 대신 걷어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웃’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는 남들이흔히 말하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건만 서로를 챙겼던 이웃이 사라지다 보니 모든 관심과 에너지는 오로지 ‘내 가족만, 내 자식만’으로 쏠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은 통 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오로지 내 혈육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단란한 가정’ 인냥 착각하기도합니다. TV를 보면서 뉴스에 비춰지는 고통당하는 이웃의 얘기들도 나와 상관없는 ‘남의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변 이웃에게 눈 돌릴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코앞의 것만 쳐다보면서 달리기만 하는 ‘말잘 듣고, 순종적인 종마(種馬)’로 길들여지는 것을 ‘가정의 숭고함’ 등으로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명찬 신부/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자주멈추는 이유

길눈이 몹시 어두워 한 번 갔던 길을 다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가야 할 길을 영영 잃은 적은 없습니다.

남들보다 시간이 거릴 뿐

길을 찾지 못할까 두려웠던 적도 없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건, 가서는 안 될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이호미 엘리자벳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4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송년 / 새해 미사 안내 ♪
 ◆ 송년감사 미사 : 31일(수) 밤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대축일 특전미사를 겸하지 않습니다.>
 한해의 끝자락에 이르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 2015년 1월1일(목) 오전 11시
 1월1일(목)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며 '세계 평화의 날'로 미사에 참례해야하는 의무 대축일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날짜에 기념해 오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1931년부터 전 세계 교회의 보편 축일이 되었고, 1970년부터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1월1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황 바오로 6세는 이 날을 1968년부터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세계 평화의 날'로 정했습니다.

- ◆ 월요일과 화요일의 미사가 임시 변경됩니다.
 월요일(29일) 새벽미사없음 ㉸ 저녁 7시30분
 화요일(30일) 저녁미사없음 ㉸ 오전 10시
- ◆ 한해를 보내며... 송년 저녁식사에 전신자를 초대합니다.
 올한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주님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교우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신부님께서 본당의 모든 교우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주셨습니다.
 모두 참석 하시어 서로 축복을 빌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8일(주일) 오후 4시30분, 친교장

- ◆ 송년감사미사후 : 생강차 나눔(성모회)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후: 전신자들에게 사목회에서 떡국을 대접합니다

- ◆ 2014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중에 마감합니다.
 ●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봉헌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개인세금보고)를 앞두고, 올해 내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14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영어교리반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영어교리반을 모집합니다.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 1월1일(목요일)저녁 성시간 없습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2월28일(주일) * PV 3반 : 미역국 백반 (\$3)
 * 주일학교 : 겨울 방학, 수업없음
 ● 12월28일(주일) * 소공동체 : 김밥 (\$4)
 * 주일학교 : 김치찌개(1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김영길 김찬구 박현주 안종연 유경자 이민상 임 순 최길주 송마이클	강숙경 김우용 김충섭 반비오 엄세종 유영균 이병우 정명모 최수복 한길선례	고천용 김원모 나경흠 변복순 오명섭 육근주 이숙화 정지숙 최의수	김광자 김재영 민성원 송영미 신순철 이귀란 이재철 조준제 최희태	김성택 김정웅 박광자 신순철 안재만 오일순 이형삼 지재환 한장환	김영경 김종렬 박종열 안재만 오일순 이근태 이형삼 지재환 한장환	합계:\$7,005
성전헌금	강미순 김찬구 신순철 오수인 이병우 정혜영 송마이클	강숙경 김충섭 안재만 유경자 이숙화 조준제 한길선례	고천용 나경흠 안종연 유영균 윤화경 이형삼 최길주	김영길 박광자 엄세종 윤화경 이형삼 최길주	김우용 박현주 오명섭 이귀란 임 순 최재은	김원모 반비오 오세원 이민상 정지숙 한장환	합계 : \$4,525
주일미사 헌금 : \$2,892							

공지사항

◆한인 가톨릭 청소년대회

Korean American Catholic Youth Day

고등학생들은 모두모여라!

함께모여 우리의 문화와 신앙을 나누자!!!

● 일시 : 2015년 1월 3일(토) 8:30am~7:30pm

● 출발 : 7시30분am

● 성당에 집합하면 선생님들이 Ride합니다,
늦게오시면 직접 애나하임으로 오셔야하오니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 한국학교 겨울방학

- 오늘주일(28일)수업 없습니다.
-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그대로 영어로 진행합니다.
- 개학 : 1월4일(주일)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성 아그네스성당 연말 선물용 이나시오 커피판매

- 가격 : \$10, \$20, \$50
- 주문 : 카페방문, 전화, E메일
- 수익금은 쉼터조성, 나눔실천, 성당건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 문의 : 이나시오카페 ☎(323)731-4433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8학기

- 일시 : 1월9일(금),10일(토) 저녁 7시~10시
1월11일(주일) 낮2시~5시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회관
- 수강료 : \$50 (\$20/1일)
- 대상 : 신자및 일반인 모두환영
- 문의 : 김크리스티나 ☎(323)896-7525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12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이순자 비비안나 991-4838 12/12(금)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민수 바오로 986-1890 12/20(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2/12(금) 오후 7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박근식 미카엘 294-9444 12/13(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형상 요셉 991-8556 12/13(토) 오후5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이금순 카타리나 424-230-1146 12/12(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상근 바오로 625-3312 12/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12/12(금) 오전11시 강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12/13(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정병옥 올리아 404-1607 12/15(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13(토) 오후 7시 합기도장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213-700-6983 12/12(금) 7시 Lampost Pizza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2/13(토) 오후 6시30분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12/3(금) 오후7시 강당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변복순 베로니카 617-3568 12/16(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회의	오후1시
----------	------

124위 시복특집< 17 > 김광옥 안드레아(1741?-1801)? 김정득 베드로(?-1801)

... 내일 정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

내포 지방 예산의 증인 집안에서 태어난 김광옥 안드레아는 오랫동안 면장으로 일했습니다. 본디 그는 훌륭한 자질을 타고났지만, 지나치게 사나운 성격 때문에 모두 그를 꺼려했습니다. 그가 50세쯤 되었을 때 이존창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는데,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이웃이 그 사실을 알고 몹시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광옥은 날마다 교우들과 한자리에 모여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드렸고, 사순 시기마다 금식재를 지키는등 갖가지 극기를 실천하며 천주교의 덕행을 부지런히 닦음으로써, 마침내 이전의 성격을 극복하고 어린양처럼 유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광옥의 친척으로 '대춘'이라고도 불리던 김정득 베드로 역시 김광옥에게서 교리를 배운 뒤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에게 교리를 전하였으므로, 오래지 않아 신자가 아닌 이들 사이에도 이름이 나게 되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두 사람은 성물과 서적만 지닌 채, 공주 무성산으로 피신하여 교리를 실천하는데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온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김광옥은 예산으로, 김정득은 홍주로 압송되었습니다. 김광옥은 혹독한 고문과 신문 중에도 다음과 같은 말로 한결같은 신앙을 증언하였습니다. "모든 언약이나 위협이 소용없습니다. 다시는 제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또께서는 임금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천주의 명령을 거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 대군대부(大君大父)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천주께서 저의 비밀스러운 생각과 감정과 의향을 보고 계시므로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후 김광옥은 감사의 명에 따라 김정득과 함께 청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를 권면하면서 형벌과 옥중의 고통을 견뎌 낸 두 사람은 다시 한양으로 압송되어 8월21일에 '그들의 고향인 예산과 대흥으로 압송하여 참수하라.'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예산까지 내려오는동안 두 사람은 그동안의 형벌로 인해 걸음을 땔 수조차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용기와 힘으로 즐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릴길에 이르러 헤어질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손을 마주 잡으며 참수 예정 시간인 이튿날 정오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광옥과 김정득 두 사람은 1801년 8월25일, 각각 예산과 대흥에서 박해자의 칼날에 순교하였습니다.

스탈린이 신학생에서 독재자로 바뀐 이유

'분홍 꽃봉오리 피더니
연한 푸른 빛 제비꽃이 되네
부드러운 산들 바람에
계곡의 백합 풀위에 놓고
질푸른 하늘에서 종달새 노래하며'

러시아를 공포로 통치했던 스탈린(1879~1953)이 정교회 신학교 신학생 시절에 쓴 '아침'이라는 시의 일부다. '시인 사제'가 꿈이었던 스탈린이 학살과 숙청으로 얼룩진 독재자의 길을 걸어간 배경에는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다.

현신적인 어머니는 아들을 사제로 키우려 했으나 아버지는 자신의 구둣방을 넘기려 했다. 아버지는 술만 취하면 어린 스탈린을 때렸다. 어린 스탈린이 갖게 된 분노 조절 장애, 복수욕이 '피의 독재자'로 만들어 갔다.

독일의 아들프 히틀러(1889~1945)도 스탈린과 비슷한 아버지를 뒀다. 세무 공무원이었으나 학력이 낮았던 히틀러의 아버지는 술꾼인데다 난폭했다. 히틀러의 비정상적인 성격과 유대인 학살의 배경은 아버지에게서 당한 폭력의 분출이었다.

자녀의 정신세계 형성에는 부모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부모의 역할과 사명에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부모가 된다.

두 아들의 사춘기를 겪으면서 혼인성사로 맺어진 부부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큰 죄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하다가 '성 요셉아버지학교'를 가장 먼저 신청해 과정을 마쳤다. 아버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

가톨릭 교회가 지향하는 아버지의 바람직한 모델은 성 요셉이다. 마리아의 임신을 알았을 때 마리아가 곤란하지 않도록 몰래 파혼을 결심하는 판대함, 당시 이스라엘 보통 남자라면 처녀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릴 수도 있었다. 그러면 그 처녀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요셉은 보통 남자를 넘는 인자한 인품을 지녔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한 하느님의 아들이니 두려워 말라"고 알리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 여기서 요셉의 순종과 단순함, 깊은 믿음이 우러난다. 요셉은 나서지 않고 늘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뒤에 머문다. 젊은 남성이 자기 성취 욕구를 포기하며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뒷바라지만 하는 것이 쉽기만 했을까.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맞으며 아버지 역할을 성 요셉이 지닌 인자함, 깊은 신앙심, 겸손, 가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정리해 본다. 입시 지옥과 취업경쟁으로 시련을 겪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도록 조용히 돕는 성 요셉 같은아버지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김 상 진 요한 /중앙일보 기자

◆ 서울대교구 홍보국영음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